현대불교, 불법홍포 기수 되길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자광 대종사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94년 대행 스님의 문서포교 원력으로 창간된 현대불교신문은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포교신행지로써의 현대불교신문은 우리 불자들이 가야할 길을 다양하면서도 심도 있는 기사로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한결 같은 불심(佛心)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 해준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유마경〉에는 "지혜가 깨끗해짐에 따라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짐에 따라 모든 마음의 공덕이 깨끗해진다. 마음이 맑고 깨끗해짐에 따라 불국토도 맑아진다"고 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전해 독자들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해 주는 언론이 되길 기대합니다.

청년 현대불교신문이 혼탁한 세상을 두루 밝히고 부처님 혜명을 바르게 이어가는 불법홍포의 최전방 기수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창간 30주년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불자들의 눈과 귀가 되고 입이 되어 사회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신문사가 되어 주시기를 합장 기원합니다.

가장 불교적이고 편안한 매체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현대불교신문은 교계의 몇 종류 언론들 중에서 가장 불교적이며 편안한 매체로 생각됩니다. 한국불교의 현장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교단으로 표방되는 불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또한 중생세간의 일이라 풍파와 사건, 사고들이 쉬지 않습니다. 언론사로 세상의 어지럽고 심란한 일들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지만 현대불교신문의 글들은 다른 매체들이 선호하는 자극적이고 사람들의 감각적 관심을 두드리는 기사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은 부드럽고 따뜻하며 편안합니다. 좋은 법문이 있고, 좋은 기사가 있으며, 좋은 필자들의 아름다운 글들이 있습니다. 교계의 신문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꿋꿋한 생명력으로 잘 견뎌주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2002년 스님이야기를 연재하며 깊은 인연을 맺은 이후 저는 현대불교신문을 계속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이 아름답고 훌륭했던 것처럼 앞으로 30년을 그렇게 또는 더 아름답고 훌륭하게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만들고 키워오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몸과 마음으로 시간과 노력을 함께한 신문사 구성원들과 독자들께 불보살님의 가피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마하반야바라밀.

정법 지키는 호법신장 돼야

조계종 호계원장 보광 스님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사시로 창간한 현대불교신문의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제자들에게 전하고 포교의 일선에서 불법홍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정진해 온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창간 이후 심도 있는 취재와 다양한 기획기사를 통해 불교 신행과 포교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가장 먼저 인터넷 뉴스인 '붓다뉴스'를 만들어 불교 언론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작금의 미디어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서른 살 청년이 된 현대불교신문은 성숙한 청년으로서 변화에 맞서야 하고 그에 걸맞는 역량과 저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잘못되거나 편향된 정보로 정법(正法)을 잃어버린 현대사회에서 언론은 장군죽비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불교계 언론은 불교를 외호하고 부처님의 정법을 지켜내는 호법신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현대불교신문도 정법을 수호하는 신장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서른 살 청년 현대불교신문을 마음을 다해 응원하며 다시 한번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정진하는 불교언론 되길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



불법홍포와 불교중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전국비구니회를 대표해 축하드립니다.

한마음선원 창건주 대행 스님께서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사시로 창간한 현대불교신문사는 천만 불자의 긍지를 대변해왔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문화, 신행포교 분야에서 참신하고 다양한 기획 기사를 통해 부처님 법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기사를 독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언론사의 으뜸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불교계 안팎의 미디어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의 발달로 가짜뉴스와 같은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론직필(正論直筆)'이라는 저널리즘의 가치가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입 안에 도끼가 있으니 몸을 해치는 것은 나쁜 말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언론 기사 역시 언어적 도끼와 같아서 바르게 쓰면 양질의 기사가 되지만 왜곡된 기사는 사람에 마음의 눈을 가리우게 됩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지금까지도 불자와 국민들에게 부처님의 귀중한 법을 바르게 전하는 정론지였고 앞으로도 선도하는 언론사로 발전할 것을 기대합니다.

자리이타 실천하는 언론

이헌승 국회정각회장



불(佛) 법(法) 승(僧) 삼보(三寶)에 귀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정각회 회장 이헌승 국회의원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의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94년 한마음선원 창건주 대행 스님의 문서포교 원력으로 창간된 현대불교신문은 불교를 홍포하는 선봉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다양한 캠페인으로 불교신행문화 진작에 힘써 왔으며, 불교계 최초 포털인 '부다피아', 최초 인터넷 언론인 '붓다뉴스'를 개설하며 불교계 언론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이는 대행 스님이 사시를 통해 강조한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화엄경〉에는 "보살은 일체 중생을 구호하고, 일체 중생을 거두어 주며,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한다"고 보살행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경구에는 대승불교의 핵심인 '자리이타(自利利他)' 정신이 담겼습니다.

서른 살이 된 현대불교신문이 '자리이타'의 보살행을 구현하고 실천하는 언론이 되길 바라며, 국회정각회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대승보살의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자비 정신 전하는 매체로 성장

주호영 국회정각회 명예회장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은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그리고 세계화를 목표로 정론 보도를 이어오며 불교계를 대표하는 언론으로서 불교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겨왔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오롯이 불법 홍포와 한국 불교 발전에 헌신해 온 현대불교신문의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을 바탕으로, 불교계의 중흥과 화합을 위한 중심 역할을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특히, 갈등과 분열이 팽배한 현대 사회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쳐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와 사회적 화합을 이끄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국민들에게 깨달음과 자비의 정신을 전달하는 매체로서 더욱 성장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2000만 불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길 바라며, 다시 한번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불교문화 진흥에 노력해달라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94년 10월 대행 스님의 원력으로 창간한 현대불교신문은 지난 30년 동안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 치열한 수행 현장과 선지식들의 법문, 불자들의 자비행을 전하며 세상을 맑게 하는 일에 이바지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보호와 보존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도 현대불교신문은 불교 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불교소식을 전달해주는 현대불교신문의 창간 30주년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대불교신문이 한국불교가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는 매체로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불교계의 정론지로서 불교의 좋은 소식들을 전달하기를 바라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창간 30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쉼 없이 발전하여 한국불교 중흥과 불교문화 진흥에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시대 요구 반영해 진정성 갖춰

윤재웅 동국대 총장



현대불교신문의 창간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은 한국불교의 중심 언론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종단 소식뿐만 아니라, 불교 교리, 신행 생활, 불교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불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해 왔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일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듯이, 현대불교신문이 앞으로도 사부대중에게 일상 속 지혜와 자비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불교 전통을 소중히 지키면서도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진정성 있는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계종 종립 대학인 동국대학교 역시 대학생 불자 양성으로 '전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24년 출범한 2500명의 동국대 불교학생연합은 한국불교의 희망이자 동국발전의 원동력입니다.

'불교중흥이 곧 동국발전'이라는 신념으로 종립대학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지난 30년 동안 쌓아온 성과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더 큰 발전과 번영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금정산 산마루의 금빛 우물, 하늘에서 내려온 금빛 물고기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방 장 여산 정여

주 지 산해 정오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
종무소 051-508-3122 원주실 051-508-3636
선문회관 051-508-0102 불교대학 051-866-7277
템플스테이 051-508-5726





